

느헤미야 강해

AN EXPOSITION ON NEHEMIAH

김효성 목사

Pastor Hyo Sung Kim
Th.M., Ph.D.

옛신앙

Old-time Faith

2015

머리말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모든 개신교회들의 공통적 신념이다. 오늘날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다양한 풍조와 운동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하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기를 원한다.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이다. 본서에는 ‘내가,’ ‘나의,’ ‘나를’ ‘나에게’ 등 일인칭 대명사가 약 114회 사용된다. 그것은 본서의 저자가 느헤미야 자신임을 잘 증거한다. 본서의 **주요 내용**은 예루살렘 성곽 재건과 회개이다. 또 본서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 백성의 순결성이다. 그들은 이방인과의 연혼 금지와 안식일 성수와 십일조 규례를 실천하였다. 본서의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장, 성곽 재건]

- 1장, 느헤미야의 기도
- 2장, 느헤미야가 유다로 보냄을 받음
- 3장, 성벽을 건축함(은 백성이 협동)
- 4장, 원수들을 막으면서 일함
- 5장, 느헤미야의 선한 통치
- 6장, 산발랏의 음모
- 7장,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수

[8-13장, 회개]

- 8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음
- 9장, 백성들이 죄를 고백함
- 10장, 백성들의 언약
- 11장,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
- 12장,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
- 13장, 느헤미야의 바른 통치

내용 목차

1장: 느헤미야의 기도	5
2장: 느헤미야가 유다로 보내짐	9
3장: 성곽을 건축함	13
4장: 원수들을 막으면서 일함	18
5장: 느헤미야의 선한 통치	22
6장: 산발랏의 음모	27
7장: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수	31
8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음	36
9장: 죄를 고백함	39
10장: 백성들의 언약	45
11장: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	49
12장: 성곽 봉헌식	54
13장: 느헤미야의 바른 통치	59

1장: 느헤미야의 기도

[1-4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본서는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본서를 썼다(딤후 3:16). 그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산궁에 있었다고 말한다. 원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말이 없으나 2:1에 의하면, 제20년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을 가리켰다.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연대는 주전 464-424년경이었으므로 제20년은 주전 445년경이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었다(11절).

그가 수산궁에 있을 때,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그는 바벨론 포로생활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 그들은 그에게 포로생활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부서진 채로 있었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있었다고 말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140년,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92년의 세월이 흐른 때이었으나 그러하였다.¹⁾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것은 그가 어떻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사랑했는지를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과

1) 느헤미야 1:3의 상황은 느부갓네살 때의 일이 아니고 포로귀환 후 어느 시점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그것은 타당해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로, 스룹바벨 때에는 성전만 건립했고(스 6:15) 예루살렘 성곽의 건립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후에도 느헤미야 전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다. 둘째로, 6-7절의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는 느부갓네살 때의 멸망을 회고하였다. 셋째로, 느헤미야 2:3에 성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회되었다’는 표현도 느부갓네살 때의 멸망에 적합하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의 기도

예루살렘 성은 구약교회이다. 느헤미야는 구약교회를 사랑하였다.

(5-7절)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어

5-11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이다. 우선, 그는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케세드 **רַחֻם**)[인자]을 베푸시는 자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그의 심정은 뜨겁고 간절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6절) 하나님을 향해 심히 악을 행했음(7절)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

(8-9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였다. 그는 계속 말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흠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그가 말한 하나님의 언약은 레위기 26:33과 26:39-42에 기록되어 있다.

(10-11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백성임을 고백하였다. 그는,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救贖)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라고 고백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도우심을 감히 기대한다.

느헤미야는 기도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라카민 **רַחֲמִים**)[궁휼]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라는 말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킬 것이다. 그때에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이었다. 그는 왕 앞에서 궁휼을 입어 고국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를 소원한 것이다.

본장은 무엇을 교훈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스라엘을 위한 심정을 본받아야 한다. 느헤미야는 포로생활을 면하고 유다 땅에 남아 있는 유다 백성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부서진 채로 있고 성문들이 불탄 채로 있는 형편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은 구약교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세상 열국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교회이다. 성경의 중심주제는 구원이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의 죄를 대속(代贖)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에베소서 1:7-10,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의 기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교회의 건립과 확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전도자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고 후원해야 한다. 교회는 신학교를 세워 전도자들을 훈련해야 하고 그들을 적절하게 파송해야 하고 또 후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후 11:23-28; 골 1:24). 신약교회 2천년 역사상 많은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이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였다. 오늘날 말세지말을 당하여 교회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어지럽고 혼란한 때에,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주의 종들의 훈련과 파송과 후원을 통한 교회 건립과 확장의 일을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 범한 죄악임을 고백하며 자복하였다. 그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과 선조들의 죄악을 자복하여 회개한 것이다. 교회의 개혁과 갱신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며, 그것은 또 목사들과 성도들의 회개치 않은 불순종과 불성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쾌락주의의 죄를 통회자복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본장은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였고(4절) 간구하였다(5절).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였다(6절). 그는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구하였다(11절).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하였고(8-9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기도는 첫 번째의 또 최상의 방법이다.

2장: 느헤미야가 유다로 보내짐

[1-6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저자 느헤미야는 계속 1인칭으로 서술한다. 그는 파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즉 주전 445년경 니산월[1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었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들어 왕에게 드렸다. 이전에는 그가 왕의 앞에서 수색(愁色)[슬픈 빛]이 없었었다. 그래서 왕은 그에게 말했다.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며 왕에게 대답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불에 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그에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하자, 그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기도]하고 왕에게 고하였다. “왕이 만일 즐거하시고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저를 유다 땅 저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에게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말하였다. 왕이 그를 보내기를 즐겨하시므로 그가 기한을 정하였다.

[7-10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거하시거든

느헤미야는 또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만일 즐거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제게 주셔서 그들로 저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저로 전[성전]에 속한 영문[큰 집]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재목을 주게 하옵소서.” 그는 아마 여러 날 동안 금식

기도하며 생각했던 그의 소원을 말했던 것일 것이다.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고 말한다. 또 왕은 군대장관과 마병도 보내어 그와 함께하게 하였다. 느헤미야는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유다 땅에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레박케쉬 토바 חֲבִיבִים וְעֲבָדָיו)[이스라엘 자손의 형통을 구하는](KJV, NASB, NIV)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

[11-16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삼일에 내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삼일에 그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그의 마음에 두신](원문)(KJV, NASB, NIV)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 즉 그가 파사 왕궁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그에게 허락하신 일을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갔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그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龍井, 용의 우물)으로 분문(糞門, 배설물 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았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태워진 채로 있었다.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그 밤에 시내를 좇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 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다. 방백들은 그가 어디 잤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다.

[17-20절]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그는 그런 후에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증언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또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신 일과 왕이 그에게 이른 말을 고하였다. 그들은 “일어나 건축하자”고 말했다. 또 그들은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

그런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말했다.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나?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답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성을]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추모함]도 없느니라.”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도우심을 믿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을 인해 슬퍼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였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았다. 그는 왕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가고 물었을 때 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는 왕의 호의와 허락을 받았을 때에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을 믿은 자이었다.

그는 고국 유다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두신 뜻이라고 진술하였다. 또 그는 대적자들에게 대답할 때에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성을] 건축하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 재건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이

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잠 3:6) 믿음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특히 하나님의 명하신 복음 전파와 교회 건립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도우심을 믿고 행해야 할 것이다. 잠언 16:3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고 말씀한다. 스가랴 4:6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마 28:20).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도우심을 믿자.

둘째로, 우리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은 마귀가 살아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한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에도 반대세력들이 있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하려 할 때에도 그러하였다. 본장은 대적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인간적 방법을 써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도 않았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추모함]도 없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대히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10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셨다.

3장: 성곽을 건축함

[1절]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시작된 성곽 건축의 일은 유다 나라의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우선, 대제사장 엘리아십은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羊門)을 건축(建築)하여 성별하였고 문짝을 달았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the Hundred, 일백) (NASB, NIV) 망대까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다. 어문(魚門)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 다음은 학교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므레못이 중수(重修)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다.

[5-8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主)의 역사(役事)에 담부(擔負)치[일을 돕지] 아니하였다. ‘그 주’라는 원어(아도네헬 מַדְּבָרִים)는 ‘그들의 주님(Lord)’(KJV) 곧 하나님을 가리키거나 ‘그들의 주군(主君)들’(NASB, NIV)을 가리킬 것이다.

또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 므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므라다와 메로롯 사람 야돈이 강 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다. 7절은,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므라다와 메로롯 사람 야돈, 곧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KJV, NASB, NIV) 강 서편 총독의 보좌에까지

중수하였고(NASB)”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다. ‘금장색 할해야’는 ‘금장색들 중 할해야,’ ‘향품 장사 하나냐’는 ‘향품 장사들 중 하나냐’라는 뜻이다(KJV, NASB, NIV). 이 구절은, 다른 사람들은 성곽 건축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9-19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밧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합모압의 아들 핫숨이 한 부분과 풀무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인 후르의 아들 르바야와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이 이 일에 참여하였고 또 살룸의 딸들도 참여하였다.

또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사노아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일천 규빗, 즉 약 450미터를 중수하였다. ‘분문’(糞門)은 ‘배설물 문’이라는 뜻이다.

또 분문(糞門)은 벤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잡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으며 문짝을 달며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다. ‘셀라 못’은 ‘실로암 못’을 가리킨다(NIV).

또 그 다음은 벨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

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다. 17절은, “그 다음은 바니의 아들 르훔 아래 레위 사람들이 중수하였고”라는 뜻이다(NASB, NIV).

또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헤나닷의 아들 바왜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자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굽이에 있는 군기고[병기창고] 맞은편까지 이르렀다. 역시,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곽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중수하였다.

[20-27절]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그 다음은 삼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굽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트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숨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

또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굽이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새의 아들 발랄은 성 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 궁에서 내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侍衛廳, the court of the guard)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水門)과 마주 대한 곳과 내어민 망대까지 미쳤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과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다.

[28-32절] 마문(馬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느헤미야 3장: 성곽을 건축함

마문(馬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추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추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나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늘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여섯째 아들’을 언급한 것은 아마 다른 아들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이 자기 침방(寢房)[침실]과 마추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금장색들 중에](NASB, NIV) 말기야가 함밧갓 문(the Inspection Gate)[검사 문]과 마추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樓)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누(樓)에서 양문(羊門)까지는 금장색[금장색들]과 상고[상인]들이 중수하였다.

본장과 12장과 역대하 25-26장 등은 예루살렘 성의 열두 문에 대해 증거한다. (1) 양문(羊門)(3:1; 12:39), (2) 어문(魚門)(3:3; 12:39), (3) 옛문(3:6; 12:39), (4) 골짜기문(2:15; 3:13; 대하 26:9), (5) 분문(糞門) (2:13; 3:14), (6) 샘문(2:14; 3:15; 12:37), (7) 수문(水門)(3:26; 8:16; 12:37), (8) 마문(馬門)(3:28), (9) 함밧갓문[檢査(검사)문](3:31), (10) 에브라임문(8:16; 12:39; 왕하 14:13; 대하 25:23), (11) 감옥문(12:39), (12) 성모퉁이문(대하 25:23; 26:9).

본장은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함에 있어서 모두들이 협력했음을 증거한다. 첫째로, 그들은 남녀 귀천의 구별이 없이 이 일에 참여하였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레위인들이 참여하였고(17절),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과 또 유다의 각 지역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참여하였고(9, 12, 14, 15, 16, 17, 18, 19절), 또 어떤 이의 딸들도 참여하였고(12절), 금장색과 향품장사, 또 다른 상인들도 참여하였다(8, 31, 32절). 전도와 교회 건립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귀

천의 구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자.

둘째로, 그들은 힘써 수고하였다. 성곽을 건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돌이나 벽돌을 쌓았을 것이고 때로는 문을 달기 위해 들보를 엮었고 문을 달았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1, 3, 6, 13, 14, 15절). 어떤 이들은 성벽을 약 450미터나 중수하였다. 또 어떤 이는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20절). 하나님의 일을 위한 봉사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일이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들은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돈을 못 벌었을 것이고 여자들은 집안일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시간도, 돈도, 힘도 사용해야 하였다. 우리도 교회 건립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며 희생하자.

셋째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10절,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 . .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9절,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 “자기 침방침실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행해야 할 것이다. 전도도 자기 집 옆에서부터 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교회 부근에서부터 전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그러나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한 자들은 제한적이었다. 5절, “그 귀족들은 그 주(主)의 역사에 담부(擔負)치[일을 돕지] 아니하였으며.” 8절, “금장색들 중에 . . . 향품 장사들 중에.” 31절, “금장색들 중에.” 금장색들과 향품 장사들 중에 참여치 않은 자들도 있었던 것 같다. 또 30절,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다른 아들들은 참여치 않았던 것 같다. 예루살렘 거민 모두가 성곽 공사에 참여한 것 같지는 않다. 언제나 그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즐거이 자원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이다.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예물을 받게 하셨고 그

일을 위해 자원하는 자들이 그것을 만들게 하셨다. 출애굽기 26:2,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출애굽기 35:21,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출애굽기 36:2,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자.

4장: 원수들을 막으면서 일함

[1-6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산발랏은 유다 백성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고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였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마치려는가, 불탄 쓰레기더미에서 돌들을 재생시키려는가?” ‘흙무더기’라는 원어(아파르 **רֶמֶשׁ**)는 ‘흙’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쓰레기더미’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본다(BDB, KJV, NASB). 암몬 사람 도비야도 곁에 섰다가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말했다.

산발랏과 도비야가 유다 백성이 성 건축하는 일 때문에 분노하거나 비웃은 것은 정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였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의 일을 비웃었으며 도비야도 비웃었다. 그것은 단지 유대인들이 견고한 성을 지음으로 자기들보다 세력이 더 강해지는 것을 시기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했다.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

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최상의 대처 방법이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획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고 높이가 절반에 미쳤다. 이것은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바른 일인가 그른 일인가가 중요하지, 그것이 바른 일임이 분명하다면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원래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7-14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중수(重修)되어 그 퇴락한 곳이 고쳐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피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고 하였다. 그들은 정당성 없이 심히 분노하였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케 하기를 음모하였다. 악한 사람들의 시기심은 악한 목표를 이루기까지 그치지 않는 것 같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을 인해 과수꾼을 두어 밤낮으로 방비하였다. 그런데 유다 백성 가운데는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흙무더기[쓰레기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하였다. 또 대적자들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말하였고, 또 대적자들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은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고 말하

였다. 12절은 “그 대적자들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은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향하는 각처로부터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리라’고 하기로”라는 뜻이다(NASB; KJV, NIV도 비슷함).

낙심은 큰 시험거리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열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 중 열 명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고 그것은 온 회중을 낙심케 하였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믿음을 가지고 온 회중을 격려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낙심치 말아야 한다.

느헤미야는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소집하여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였고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民長)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였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담대히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격려한 것이다.

(15-20절)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유다의 대적자들은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뜻을 알았다는 사실을 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꾀를 꾀하셨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은 각각 성곽 쌓는 곳으로 돌아와 여전히 자기들의 일을 했다.

그때로부터 느헤미야의 수종자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民長)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擔負)하는[짐을 지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섰었다.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역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서로 거리가 멀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인간이 해야 할 바를 다하였다. 즉 그는 대적자들의 침입에 대비해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믿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벽 쌓는 일도 계속하였고 대적자들에 대한 방비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21-23절]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느헤미야는 이렇게 일하여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뜨기까지 창을 잡았다. 또 그때에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다고 낮에는 일하리라”고 하였다. 느헤미야나 그의 형제들이나 그의 수종자들이나 그를 좇아 파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물을 길으러 갈 때에도 무기를 잡았었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때때로 대적자들이 있다. 또 교인들 중에는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자들도 있다. 낙심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매우 큰 문제거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본장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9절).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섭리자이시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는 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쳐 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한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자.

둘째로,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인간이 해야 할 바는 다해야 한다. 대적자들이 침공해 오려고 계획하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방비를 하면서 일했던 것처럼(9, 16-17, 22-23절), 우리는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며 자기

가 해야 할 일에 불성실하지 말고 자기가 해야 할 바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러나 인간의 도리는 다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라고 본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행해야 한다(15절). 고린도전서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5장: 느헤미야의 선한 통치

본장은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 어떤 귀인들과 관원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들을 받으므로 유다 백성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 것을 보고 그 문제점을 고친 일을 기록한다.

[1-5절]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때에 백성들이 그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였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고 하였고,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라고 하였다.

유다 백성들의 삶은 유여하지 못하였다. 유다 땅에는 흉년이 들었던 것 같고 그들의 식생활에는 궁핍함이 있었고 심지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곡식을 사야 하였고 빚을 내어 세금

을 내어야 했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하였다. 그런데 유다의 귀인들과 관원들은 대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과 탄식은 심히 컸다.

[6-10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 . .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가르친 바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었다. 율법은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있어도 이자를 받는 말라고 명하였다. 출애굽기 22:25-26,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빌려주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債主)같이 하지 말며 변리[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레위기 25:36-37, “너는 그에게 이식[이자]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이자]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빌려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빌려주지] 말라.” 시편 15:5, “[주의 장막에 유할 자는] 변리로 대금치 아니하며[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관원들을 꾸짖으며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나와 **אֶשְׁכֶּנֶז**)[고리대금](KJV, NASB, NIV)를 하는도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말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그들은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느헤미야는 또 말하였다. “너희의 행한 바가 좋지 못하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이자] 받기를 그치자.”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좋지 못하였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악된 행위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였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관원들에게 그 일을 그치자고 권하였다. 자기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다 그런 일을 중지하자고 하였다. 또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의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잠언 14:31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라고 말하였다. 신약성경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장려하는데(요이 4; 요삼 3-4), 그것은 서로 사랑함을 의미하였다.

(11-13절)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느헤미야는 또 말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집을 돌려보내고, 또]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지 일을 돌려보내라”고 했다. 그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여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고 대답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옷자락을 떨치며 말하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쳐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떨쳐져서 빌지로다[비게 될지로다]”고 했고, 회중들은 다 “아멘” 하고 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백성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느헤미야에게 선한 생각과 소원을 주셨고 느헤미야의 선한 생각은 유다 땅에 그대로 실현되었다.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은 그쳤을 것이다. 유다 땅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살지만, 부자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구하는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율법에 명령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은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해야 할 선한 삶이다.

[14-19절]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느헤미야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그와 그의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즉 총독에게 주어진 합법적 봉급을 받지 않았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무거운 짐을 지워] 은 사십 세겔뿐 아니라, 양식과 포도주를 취했고 그 종자들[수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그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그 성곽 중건하는 일에 힘을 다했고, 땅을 사지 않았고, 그의 모든 수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즉 그들은 술선하여 나라를 위해, 예루살렘 중건을 위해 일했고, 개인의 재산 증식에 힘쓰지 않았다. 또 느헤미야의 식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함께했고 그 외에도 사방의 이방인들 중에서 나아온 자들이 있었다. 매일 느헤미야를 위해 소 하나와 살진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치포립 **סִימִרִים**)[새들, 가금류]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백성의 짐이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내 하나님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복을 주시옵소서].”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본장은 우리가 이기적 탐심을 버려야 할 것을 교훈한다. 유다의 귀인들과 관원들은 동족 유다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그로 인해 가난한 유다인들은 더욱 가난하

여졌다. 그것은 부자들과 가진 자들의 이기적 탐심의 문제이었다. 이기적 탐심은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의 법에 반대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율법의 규정에 반대된다. 부자들은 더 가지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잘 살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구제해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꼬박꼬박 이자를 받았다.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킨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최악된 일이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관원들을 책망하였고 이자 받는 일을 그치자고 권하였다. 우리는 이기적 탐심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먹을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며 살 줄 알아야 한다(딤후 6:7-8).

둘째로, 본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베푸는 자가 될 것을 교훈한다. 9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이 아니냐?” 14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16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행으로 나타난다.

신약성경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선한 삶을 실천해야 할 것을 교훈한다. 마태복음 25:35-40,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로마서 12: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갈라디아서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디모데전서 6:17-18, “[네가 부자들을 명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뉘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히브리서 13:1-2,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6장: 산발랏의 음모

[1-9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느헤미야에 의해 시작된 예루살렘 성곽 중건의 공사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에 의해 반대를 받았다. 그들과 그 나머지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않았다 함을 들었다. 그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이었다. 산발랏과 게셈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고 말했다. 실상은 그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느헤미야는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답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일을 중단시키고 그것을 떠나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그들과 상대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런 자들을 상대하느라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할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승인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대적자들은 네 번이나 이같이 느헤미야에게 보내었으나 느헤미야는 여전히 대답하였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부하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느헤미야에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선지자들]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고 하였다. ‘가스무’(גַּסְמוּ)는 아마 ‘게셈’(גֶּסֶם)을 가리키는 것 같다(NIV).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모반하려고 성을 건축하며 그 성의 왕이 되려 하고 또 선지자들을 세워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전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यो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느헤미야는 진실하고 단호한 말로 담대하게 그들을 대처하였다.

대적자들의 목적은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을 두렵게 하고 피곤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곽 중간의 일을 중단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다. 이것은 마귀와 그의 종들의 하는 모든 활동의 한 목표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처하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기도는 성도의 힘이다.

[10-14절] 이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그 후에 므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집 안에만 있고 보이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갔는데, 그가 말하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진[집]으로 가서 외소(헤칼 הַיְיָ) [성전] 안에 있고 그 문[성전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고 하였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말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렸다. 그는 자신을 크게 여기거나 자기 몸을 중시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과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바는, 스마야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고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이런 예언을 함이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그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그를 비방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충성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범죄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악한 자들의 음모와 비방에서도 건져주신다. 시편 25:15,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 하나님이며,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행한 바를 기억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표이다. 성도가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는 최상의 해결책이다.

[15-19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예루살렘 성곽 중건 공사는 52일 만에 엘룰월(6월) 25일에 끝났다. 느헤미야의 모든 대적자들과 사면의 이방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워하며 낙담하였다. 그것은 이 일을 유다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때에 유다의 귀인들은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도착하였는데, 그것은 도비아가 아라의 아들 스

가나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므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 말하였고 또 느헤미야의 말도 그에게 전달하였다. 도비야는 항상 그에게 편지하여 그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적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대적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탄과 악령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게 그러했듯이, 우리를 해하려 하기도 하고 거짓 말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혀 하나님의 일에 손상을 끼치려 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느헤미야가 처신했듯이 대적자들을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경건한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첫째로, 우리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본장은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와 그 동료들을 두렵게 하려 하였다고 네 번이나 증거한다(9, 13, 14, 19절).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9절), “내 하나님이며 [저들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14절)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

셋째로,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한다. 느헤미야가 자신을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며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성전에 들어가 숨었다면 그는 범죄하게 되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치 말아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자. 느헤미야는 대적자들과 일일이 상대하지 않았고, 오직 성곽 중건의 일에 전념하였

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임무를 위해 충성하였다. 그럴 때 예루살렘 성곽 중건의 일이 완수되었다. 그 일은 52일 만에 완성되었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교훈하였다(딤후 4:5). 오늘날 같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며 충성하자.

7장: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의 수

먼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간략히 복습 혹은 정리해 보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역사를 기술하는 책이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생활 후, 주전 537년경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내용이다. 원수들의 방해로 약 15년간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다시 재개되어 4년만에 완공하였다. 그때가 주전 517년경이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0년 만의 일이었다.

그 후 주전 457년, 즉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80년 후, 성전을 다시 건축한 지 60년 후,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경건한 학사 에스라가 돌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죄는 연혼의 죄악이었다. 이방인들과 연혼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중대한 죄악이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즉 교제의 문제이다. 이것은 결혼에서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 전반에서 중요하다. 우리는 믿지 않

는 자들과의 교제를 조심해야 한다. 또 믿어도 바로 믿지 않는 자들, 예를 들어, 천주교인들, 자유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과의 교제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결혼도 물론 삼가야 한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돌아온 지 약 12년 후, 즉 주전 445년경에 파사 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왕의 배려로 총독으로 임명되어 돌아와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게 된 내용이다. 역시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그 큰 예루살렘 성곽 공사가 완성되었다.

또 그런 후 에스라를 통해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연흔, 십일조, 안식일 문제이었다

[1-4절] 성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성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세운 후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영문의 관원’이라는 원어(שַׂר הַבִּימֶה)는 ‘관저의 관원’(KJV) 혹은 ‘요새의 사령관’(NASB, NIV)이라는 뜻이다. 하나냐는 특히 위인(爲人, 사람됨)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참으로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고 말했다. “각각 반차를 따라 . . . 자기 집 맞은 편을”(이쉬 베 미쉬마로 웨이쉬 네게드 베소 אִישׁ בְּמִשְׁמָרוֹ וְאִישׁ בְּנֶגְדׁ בֵּיתוֹ)이라는 원어는 “각자 자기 파수 위치에서와 각자 자기 집 앞에서”라는 뜻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맡은 파수 위치에서 파수했고 또 각 사람은 자기 집을 파수했다. 그렇게 한 까닭은 그 성이 광대하고 거민이

희소하여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한 자들의 가옥을 아직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예루살렘 성 파수하는 일에 협력했다.

[5-7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계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놓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와와 느훔과 바이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 속에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족보대로 계수하였는데, 그때 그는 바벨론에서 처음 돌아왔던 자들, 즉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을 중심으로 돌아왔던 자들의 족보책을 얻었다. 그것은 느헤미야 때로부터 보면 약 92년 전의 일이었다.

[8-38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합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2,254명이요 샷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브배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와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새 자손이 324명이요 하림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헬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228명이요 뽀아스마렛 사람이 42명이요 기랴여아림과 그비리와 브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222명이요 벨엘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39-42절]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43-45절]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46-60절]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매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야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새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비스십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비슬릿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이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61-65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앓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기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66-69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70-73절]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다릭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릭과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릭과 은 2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느헤미야 8-73절에 기록된 족보들과 그 수효는 에스라 2:1-70의 것과 비슷하다. 숫자상의 차이는 분류 방법의 차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자들의 총합계는 42,360명으로 동일하다(스 2:64).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느헤미야는 그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혹은, ‘관저의 관원’ 또는 ‘요새의 사령관’) 하나나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의 동생 하나니는 처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그 황폐한 소식을 형에게 전해주어서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였던 인물이다. 그도 형과 같이 경건하였던 것 같다. 또 하나니는 특히 그 사람됨이 충성되었다. 즉 그는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인물이었다. 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이었다. 그런 자를 예루살렘 성의 통치자로 세웠으니 참 잘하였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악을 떠나게 된다. 잠언 16:6,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교회의 지도자나 사회의 지도자나 비슷하다.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천부장, 백부장 등으로 삼았었다(출 18:21).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장로의 자격으로 ‘책망할 것이 없음’ 즉 신앙과 인격의 온전함을 들었다. 그것은 배교와 타협의 시대에 바른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은 물론, 온유하고 겸손하며 선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포함한다. 오늘날 사회의 지도자들, 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인물이어야 바람직하다.

둘째로, 예루살렘 거민들은 협력하여 성을 파수하였고 특히 자기 집 앞을 파수하였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받은 재능과 은사와 직분을 따라 충성하고 또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며 지켜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인도자들은 백성을 잘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처음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얻었다. 모든 백성은 각 지파와 족속을 따라 그 수효가 파악되었다. 에스라 2장이나 느헤미야 7장은 아마 분류 방법의 차이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총합계는 동일하였다.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자들, 특히 목사와 장로들은 바른 신앙고백을 하고 권징 아래 돌 만한 성도들과 구도자들, 즉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까지 잘 파악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8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음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이스라엘 자손은 엘룰월(6월) 25일에 예루살렘 성의 성곽 재건공사를 다 끝내고(느 6:15) 그 성에 거하였는데, 7월(티쉬리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였다. 7월 1일 월삭(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아이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약 6시간 가량, 남자, 여자 무릇 아이들을 만한 자들의 앞에서 읽었고 모든 백성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에 학사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는데, 그 우편에 선 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라와 므술람이었다. 에스라와 함께 그의 오른편에 여섯 명, 왼편에 일곱 명, 모두 열세 명이 섰다. 그들은 아마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에스라가 읽는 율법의 말씀에 대한 공적 승인을 나

타낼 것이다. 학사 에스라는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앞에서 책을 폈으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은 일어섰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낼 것이다. 에스라는 크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였고 모든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아멘’은 ‘참으로 그러하다’는 뜻이다.

[7-12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율법책에서](원문, KJV, NASB, NIV)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7절에 열거된 열세 명은 레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로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 그들은 그 율법책을 낭독하기도 했고 그 뜻을 해석하기도 했다. ‘해석하여’라는 원어(메포라쉬 מְפָרֵשׁ)는 ‘밝히며’(BDB, KJV, NIV)라는 뜻이다. 그들은 다 에스라의 사역을 도왔다.

그런데,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에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聖日)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말했다. 느헤미야는 또 말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聖日)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모든 백성은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들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13-18절] 그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그 이튿날 못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책을 보았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며 또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고 하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백성들은 나가서 나무 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초막절 첫날(7월 15일)부터 끝날(7월 21일)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사람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기독교는 책의 종교임을 보인다. 본장에는 ‘율법책’이라는 말이 여섯 번(1, 2, 3, 8, 14, 18), ‘책’이라는 말이 두 번(5, 5) 나온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계시들을 주신 후 그것들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었다(신 31:24).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신구약 성경책을 주셨다. 그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며 신앙생활의 정확무오한 유일의 규범이다(딤후 3:16; 계 22:18-19). 기독교는 성경책의 종교이다.

둘째로,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사모해야 한다. 백성들은 일제히 모여 에스라에게 성경 읽기를 요청했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녀가 모였고 책을 펼 때 일어섰다. 에스라는 7월 1일 새벽부터 오정까지 율법책을 읽었고(3절), 그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무리는 아멘 아멘

으로 화답하였고 몸을 굽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레위인들은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했고(8절), 또 그 읽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고 깨닫게 하였다(8, 12절). 에스라는 초막절에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였다(18절).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사모하자.

셋째로, 성경을 들을 때, 그들은 울며 회개하였고 또 기뻐하였고 순종하였다(9절, 12절, 16-18절). 이것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그럴 때 큰 기쁨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될 것이다.

9장: 죄를 고백함

[1-6절] 그 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굶은

그 달 곧 7월(느 8:1, 2, 14)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모여 금식하며 굶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했고 이 날에 낮 4분지 1 즉 약 3시간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율법책을(베세페르 토랏 에호와 יהוה; תורה טעפר)[여호와와 율법책에서] 낭독했고 낮 4분지 1 즉 다른 약 3시간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들은 3시간씩 성경을 읽고 죄를 회개하며 예배드렸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 등 여덟 명은 설교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갓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야 등 여덟 명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옵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

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주님만]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며 보존하시는 섭리자이다.

[7-8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들은 또 말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

[9-12절]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그들은 또 말하였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셨사오며.”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보시고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에서도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쫓아오던 자들을 홍해에 빠뜨리우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13-15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그들은 또 말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시라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립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은 그가 하늘에서 친 음성으로 주신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 그것은 정직한[올바른] 규례이며 진정한(에메스 מֵאֱמֶת)[진리의] 율법이며 선한 율례와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셨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주셨다.

[15b-17]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 하신

그들은 또 말했다.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해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멸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셨다.

[18-21절]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그들은 또 말하였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노하게] 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연하여 공흠을 베푸사(베라카메카 하랍빔 **מִיִּקְרָא קִרְבָּנִים**)[큰 공흠로]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취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주의 선하신 성령](NASB, NIV)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 물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를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께서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거나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지 않으셨고 만나와 물의 공급을 중단치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공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를지 않았다.

(22-26절)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주시매

그들은 말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주시매 저희가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복을 즐겼사오나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

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모독적이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요단강 동편 땅, 곧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셨고 또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거민들을 멸하시고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과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들과 우물들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율법을 등뒤에 두고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다.

[27-31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그들은 또 말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공흠을 발하시[큰 공흠을 따라]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공흠을 발하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주의 공흠이 크시므로[주의 큰 공흠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공흠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가나안 정착 후,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징책을 받았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들이 사사들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교만하며 목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그

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용서하셨고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 있다.

(32-38절) 우리 하나님이며,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그들은 또 말했다. “우리 하나님이며,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앗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히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삽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열왕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앗수르 나라에 멸망하여 포로로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그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그들의 악행과 죄 때문이었다. 이제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다시 한번 결심을 하는 것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잘 섬기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시

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섬기자.

둘째로,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을 버리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는 인간의 뿌리깊은 죄성과 고난의 이유를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교만과 불순종을 다 버리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만 의지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새 생명을 얻었으나, 우리의 성화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 안에서 날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자.

10장: 백성들의 언약

[1-27절] 그 인친 자는 하가랴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므레뫣,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므술람, 아비아, 미야민, 마아시야, 빌개, 스마야니 이는 다 제사장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아,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그 형제 스바냐, 호디아,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흠, 하사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아, 바니, 브니뉴요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비핫모압, 엘람, 샷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배, 아도니야, 비그왜,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앓술, 호디아, 하숨, 베새, 하립, 아나돗, 노배, 막비아스, 므술람, 헤실, 므세사벨, 사독, 앓두아, 블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아, 하나냐, 핫숨, 할르헤스, 빌하, 소벡, 르흠, 하삽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아나이였느니라.

1-27절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도장을 친 자들 중 대표적 인물들의 명단을 기록하였다. 그들은 느헤미야와, 제사장들 22명과 레위인들 17명과 백성의 지도자들 44명이다. 도장을 친 레위인들 중에는 앞장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회개의 기도와 찬송을 올렸던 자들인 예수아, 갓미엘, 바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8-31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좇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우리 주 여호와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앞에 기록된 83명뿐 아니라, 그 외의 많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곧 성전의 종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과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이 그 지도자들을 좇아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다 지키기로 맹세하였다.

특히 그들이 지키기로 맹세한 것들은 첫째로, 이방인들과 연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또 그들의 아들을 위해 이방인 딸들을 데려오지도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이것은 경건의 상실 혹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그들은 우상숭배에 떨어질 것이다. 오늘날도 신자는 세상 결혼, 불신 결혼을 피해야 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는 친밀한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동창회나 계 등으로 세상 친구들과 너무 친근히 지내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로, 그들은 안식일과 성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안식일 성수의 중요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며 경건의 훈련을 받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다.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자는 그의 경건도 식어지고 잃어버리기 쉽다.

셋째로, 그들은 제7년마다 즉 안식년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겠다고 서약하였다. 안식년의 주된 정신

은 가난한 이웃들에 대한 배려이다.

[32-34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였고.

넷째로, 그들은 매년 3분의 1세겔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서약하였다. 1세겔은 은(銀) 약 11.4그램이며, 3분의 1세겔은 약 4그램이다. 그 성전세는 성전에 매일 차려놓는 떡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월삭)와 정한 절기에 쓸 제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물 등을 위해 쓰게 될 것이다.

다섯째로, 그들은 제비 뽑아 정해진 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드려 단에 불을 사르게 하겠다고 서약하였다.

[35-39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생축의 처음 난 것과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십일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십일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십일조의 십분 일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곧 곳간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및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섯째로, 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약하였다. 그

것은 해마다 토지 소산의 첫 열매와 각종 과목의 첫 열매와 만아들들과 가축의 첫 새끼들이다. 새 포도주와 기름도 그러하였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의 골방에 두어졌다.

일곱째로, 그들은 소득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했다. 그들의 토지 소산의 십일조는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십일조의 십일조를 하나님의 전 골방 곧 제물들을 보관하는 곳간에 둘 것이며, 그것은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모세의 율법에 지시된 바대로이며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성전을 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에게 드리는 제사와 그의 율법의 교훈을 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건이며 속죄 신앙이며 말씀 중심, 교훈 중심의 삶이다.

본장에는 기억할 만한 세 가지 교훈이 있다. 첫째는 이방인과 연혼하지 않는 것이다. 신명기 7:1-4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연혼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였다. 신약성도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 친구들과의 교제도 끊는 것이 좋다. 신약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한다고 교훈했고(고전 7:39) 또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하지 말라고 하였다(고후 6:14-16). 그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에 명시된 하나님의 명령이다(출 20:8-11). 그것을 어기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이다(출 31:13-17). 에스겔 20장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큰 죄임을 반복해 증거했다(겔 20:12, 13, 16, 20, 21, 24). 이사야 58:13-14는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않고 그 날을 존귀히 여기면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계명의 정신을 따라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히브리서 10:25의 교훈대로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는 첫 열매와 십일조 생활이다. 첫 열매와 십일조 생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일 뿐 아니라, 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곧 속죄 신앙의 삶이며 교회 중심의 삶이다. 오늘날도 우리는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으로 교회를 세우며 전도자들을 도우며 가난한 교우들을 돌아보며 또 주의 선한 일들을 힘쓴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헌금을 풍성히 하라고 교훈한다(고후 8:1-7).

11장: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

[1-2절]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였다. 본문은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른다(1, 18절).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과 기도와 경배가 있기 때문이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솔선하여 그 성에 거하였다. 또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이 그 성에 와서 거하였다. 그 나머지는 다른 성읍들에 거하였다. 또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복을 받았다.

[3-6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웃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손이요 스가라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3절의 원문의 어순은 다음과 같다. “또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道)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라. 또 유다의 성들에서는 각 사람은 그들의 성들에 있는 그 소유지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성전 수종자들], 그리고 솔로몬의 종들의 후손들이었더라”(MT, KJV, NASB).

유다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은 베레스 자손 아다야와 마아세야이었다. 그들의 자손의 합계가 468명이었고 그들은 다 용사이었다. 그들에게는 그 성을 위한 봉사나 수고, 또 위험을 감수함이 필요했을 것이나, 그들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지키고자 자원했던 것 같다.

[7-9절] 베냐민 자손은 살루니 저는 므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브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래 등이니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핫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베냐민 자손 중에는 살루와 갑배와 살래 등이었고 그들의 자손의 합계는 928명이었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유다는 그 다음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다.

[10-14절]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므라못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홀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 아맛새니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새의 손자요 므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 형제의 큰 용사니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아히둡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었다. 또 아다야인데, 그 형제의 족장된 자들의 합계가 242명이었다. 또 아맛새인데, 그는 그 형제의 큰 용사이며 그 자손의 합계가 128명이었다. 총합계가 1192명이었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다. 그들은 다 성전 제사를 수행하는 자이었다.

[15-18절]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핫솅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대와 요사밧이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맛다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브대와 요사밧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맛다냐인데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그 다음이 되었다. 또 압다가 있었다.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의 합계는 284명이었다.

[19-21절]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 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데 합계가 172명이었다.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다.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였으며 시하와 기스바가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22-24절]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맛다나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웃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므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웃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 다스렸다. 이는 과거 왕의 명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유다의 자손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예루살렘 성곽 재건 후 느헤미야는 자기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일시적이었던 같다. 그들은 10장의 서약서에 도장을 찍은 자들의 명단에 나타나지 않는다.

[25-36절]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랏 아바와 그 촌과 디분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뽀뽀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므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하며 또 사노아와 아들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므마스아와 아야와 뽀엘과 그 촌에 거하며 아나돗과 뇨과 아나냐와 하술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앞에서 언급한 지도자들과 그 자손들 외에, 나머지 백성들은 유다 땅의 각 마을들과 들에 흩어져 거하였다. 유다 자손들은 기랏 아바, 디분, 여갑스엘, 예수아, 몰라다, 뽀뽀렛, 하살수알, 브엘세바, 시글락, 므고나, 에느림몬, 소라, 야르뭇, 사노아, 아들람, 라기스, 아세가 등 17곳에 거하였다. 그들은 맨 남쪽의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 접경인 힌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다.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 므마스, 아야, 뽀엘, 아나돗, 뇨, 아나냐, 하술, 라마, 깃다임, 하딧, 스보임,

느발랏, 로드, 오노, 공장(工匠) 골짜기 등 16곳에 거하였다. 유다에 있던 어떤 레위 사람들은 베냐민과 합하였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며 지키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거하였고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그 성에 거하였다. 자원하여 그 성에 거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들은 다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고 그 성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 같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122:6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고 말한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를 가리킨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살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말했고(롬 14:7-8), 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였다(고전 16:22).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16-17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예수께서 피흘려 사신(행 20:28)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세우며 지키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주께서 피흘려 사신 영혼들과 신약교회를 사랑한다.

또 우리는 교회의 공적 예배 모임들과 교회의 일들과 활동들을 귀히 여기자. 구약의 성전 예배는 신약의 교회 예배가 되었다. 우리는 이 일

을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자. 또 공예배들과 찬송과 기도와 설교 말씀 듣기, 성경공부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봉사의 일들을 귀히 여기자.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의 일과 활동들, 권찰의 직무, 예배 반주, 구역예배, 찬양대 봉사, 수요전도대, 개인 전도, 재정실 봉사, 차량 봉사, 주방 봉사(식사준비와 봉사, 설것이 등), 교회 사무실의 일들(주보 접기, 옛신양지 접기 등), 방송실 봉사, 예배당 청소와 관리 등 교회의 봉사의 일들을 다 귀히 여기자. 그것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해야 할 귀한 일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교회를 사랑하자.

12장: 성곽 봉헌식

[1-9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좇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리아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라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므레못과 잇도와 긴느도이와 아비아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할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레위 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갓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맛다냐니 이 맛다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10-21절]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았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았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된 자는 스리아 족속에는 므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므술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난이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므라못 족속에는 헬개요 잇도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므술람이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야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맛드내요 여다야 족속에는 웃시요 살래 족속에는 갈래요 아목 족속에

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벨이었느니라.

[22-26절] 엘리아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앓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갓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맞다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므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반차대로 문 안의 공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1-9절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놓여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지도 아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지도자들을 말한다. 10절의 예수아는 8절의 레위인 예수아가 아니고, 1절의 대제사장 예수아이다. 그의 아들은 요야김(10절), 그의 부친은 요사닥이었다(26절; 스 3:2).

10-11절은 대제사장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 그의 손자 엘리아십, 그의 증손자 요아다 등, 예수아의 자손들을 언급한다. 13-21절은 요야김 때에 제사장 스무 족속들의 20명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22-26절은 제사장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 때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이름들을 기록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27-30절]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 오고 또 뽕길갈과 게바와 아스마뿔 등에서 모여 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음이

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27절부터 4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카눅캣 코맛 예루살라임 קִּבְּוֹת הַמִּצְדָּוֹת)에 대한 내용이다. 27절, “예루살렘 성곽의 봉헌식 때에 그들은”(영어성경들). 유다 백성들은 우선 레위인들을 불러모았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몸을 정결케 하였고 온 백성도 그렇게 하였고 또 성문들과 성도 정결케 하였다.

[31-43절]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향렬을 지어 가게 하는데 한 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므슬람과 유다와 베나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맛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래와 길랄래와 마애와 느다벨과 유다와 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뒷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 망대 뒷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그치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의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내와 스가랴와 하니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웃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 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곽 봉헌식의 모든 일들은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주관하였다. 그는 유다의 방백들과 감사 찬송하는 자들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 위로 줄을 지어 행진하게 하였다. 성의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행진하는데, 한 때는 성곽 위를 오른쪽으로 행진하며 호세야와 유다 방백 절반이 뒤따랐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하나님의 사람 학사 에스라를 앞장세웠다. 다른 한 때는 성곽 위를 왼쪽으로 행진하며 느헤미야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랐다. 유다 방백들이 “따르는 자”(32절)로 표현되고 또 느헤미야가 “그[무리의] 뒤를 따라”(38절) 갔다고 표현되는 것은 지도자들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 같다. 그들은 행진하여 예루살렘 성의 북쪽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러 멈추어 섰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불었고 노래하는 자들은 크게 찬송하였다. 그 날 성곽 봉헌식 때에 모든 사람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43절은, “이 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고 증거한다.

[44-47절]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 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삼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44-47절은 예루살렘 성곽을 봉헌한 그 날에 사람들은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

과 첫 열매들과 십일조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정리하고 사람을 세워 책임을 맡겼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때문에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들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해이해져 율법의 규례대로 행치 않을 때는 레위인들이 흠어져 세상 일을 하기도 하였다(느 13:10). 그러나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갓 돌아온 스룹바벨 때나 느헤미야 때에는 그들이 율법의 규례대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었고 그 구별한 것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표시이었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 본장은 1절부터 26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때에 그리고 느헤미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허락하셨음을 증거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 제사가 중요하였다.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증거해주신 것이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이 성곽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그들은 그 일을 위해 레위 사람들을 불러모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온 백성이 몸을 정결케 하였다(28-30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렸다(31, 41-42절).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 행하지 않고 겸손히 행한 것 같다(32, 38절).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학사 에스라를 앞세웠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였음을 보이는 것 같다(36절). 또 온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크게 즐거워하였다(43절).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시편 95:1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말한다. 우리도 몸을 정결케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자.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물질적 섬김도 실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들과 첫 열매들과 십일조들을 창고에 모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십일조를 제사장들에게 주었다(44-47절).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 두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마 6:19-21). 헌금은 천국 소망의 증표이다.

13장: 느헤미야의 바른 통치

[1-3절]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었는데

“그 날에” 즉 예루살렘 성곽 봉헌식 날에, 느헤미야는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이 듣게 하였다. 그런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밭밭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며(신 23:3-4)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다.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케 하였다. 그것은 성령이 가르친 교제와 절교의 원리를 실행한 것이다.

[4-9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이전에 하나님의 전 골방들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방을 준비했는데,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느 2:10) 느헤미야의 사역을 미워하고 대적했고(느 4:7-8; 6장) 그러나 유다의 귀인들 중에는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그는 항상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 하였다. 엘리아십은 성벽 건축에는 참여하였으나(느 3:1)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인을 친 문서에는 이름이 없었다(느 10장). 그는 하나님의 원수들과 교제한 신복음주의자의 전형이었다.

엘리아십이 도비야에게 방을 주었을 때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다. 바벨론 왕[과사 왕] 아다사스다 32년[주전 433년]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해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알았다. 그는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시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이 일은 성 봉헌식을 한 때로부터 약 12년 후의 일이었다(느 2:1; 13:6).

〔10-14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또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받지 못했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밭으로 도망하였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민장[관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꾸짖어 말했다. 또 그는 즉시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고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게 하였다. 십일조를 바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것과 같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의 규례를 지켜 십일조 생활을 실천하며 레위인들을 돌아보았을 것이다. 지도자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로 다시 십일조를 바치게 하였다.

느헤미야는 또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아로 창고를 지키게 하였고 맛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충직한(네에마닐 **נְעִימָאִים**)[충성된, 믿을 만한] 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직무는 형제들에게 그 십일조를 분배하는 일이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 하나님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5-22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그때에 느헤미야가 보니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았다. 그 날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경계하였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았다. 느헤미야는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 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또 그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고 명했고 그의 부하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그는 경계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고 말했다.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느헤미야는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고 하였다. 그는 또 하

나님께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안식일 범하는 것을 책망하였고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였다.

[23-27절]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그때에 느헤미야는 또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말했다.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또 그는 말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방인과의 연혼이 없어지지 않았다. 에스라가 돌아왔던 주전 457년에 그들은 연혼을 회개하며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냈었다(스 10장). 그러나 24년쯤이 지난 지금(주전 433년경) 그들은 또다시 해이해졌다. 하나님의 교회는 권징이 성실히 시행되지 않으면 신앙이 해이해지고 경건과 도덕성이 부패되고 변질된다. 권징은 과연 교회의 힘줄과 같다. 그것은 권징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각성을 준다.

[28-31절]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또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음을 알고 그를 쫓아내어 떠나게 했다.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 하나님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

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그들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다. 그는 또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 하나님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교제하거나 절교해야 한다(고전 15:33; 고후 6:14-17). 잘못된 교제는 신앙의 변질을 가져온다. 우리는 십일조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아야 한다. 또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므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자라게 해야 한다.

저자 소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졸업 (B.A.).

총신대학 신학연구원[신학대학원] 졸업 (M.Div. equiv.).

미국,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Th.M. in N.T.).

미국, Bob Jones University 대학원 졸업 (Ph.D. in Theology).

계약신학대학원 교수, 합정동교회 담임목사.

[역서] J. 그레섬 메이천, 신약개론, 신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

[저서] 구약성경강해 1, 2, 신약성경강해, 기독교교리개요, 기독교 윤리, 현대교회문제,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복음주의 비평, 현대교회문제자료집, 천주교회비평 등.

느헤미야 강해

2012년 6월 15일 초판

2017년 1월 4일 수정

저 자 김 호 성

발행처 옛신앙 출판사

Old-time Faith Press

www.oldfaith.net

서울 마포구 합정동 364-1

합정동교회 내

02-334-8291, 9874

oldfaith@oldfaith.net

등록번호: 제10-1225호

ISBN 978-89-98821-15-9 03230

옛신앙출판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출판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오직 정확 무오(正確無誤)한 하나님 말씀인 신구약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背敎)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출판사 서적 안내

- 김효성, 구약성경강해 1, 2. 878, 1001쪽. 각 26,000원 (보급가 10,000원)
- 김효성, 신약성경강해. [제2판]. 1014쪽. 26,000원 (보급가 11,000원)
- 김효성, 출애굽기 강해. 263쪽. 무료.
- 김효성, 레위기 강해. 189쪽. 무료.
- 김효성, 민수기 강해. 212쪽. 무료.
- 김효성, 신명기 강해. 241쪽. 무료.
-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298쪽. 무료.
- 김효성, 열왕기 강해. 271쪽. 무료.
- 김효성, 역대기 강해. 286쪽. 무료.
- 김효성, 욥기 강해. 211쪽. 무료.
- 김효성, 전도서 강해. 86쪽. 무료.
- 김효성, 아가서 강해. [제2판]. 87쪽. 무료.
- 김효성, 이사야 강해. 496쪽. 무료.
- 김효성, 예레미야 및 애가 강해. 435쪽. 무료.
- 김효성, 소선지서 강해. 360쪽. 무료.
- 김효성, 마태복음 강해. 378쪽. 6,100원 (보급가 3,000원).
- 김효성, 마가복음 강해. 223쪽. 4,000원 (보급가 2,000원).
- 김효성, 요한복음 강해. 281쪽. 6,000원 (보급가 3,000원).
- 김효성, 조직신학. 604쪽. 6,000원.
- 김효성, 기독교 교리개요. [제9판]. 96쪽. 2,000원 (보급가 1,000원).
- 김효성, 기독교 윤리. [제5판]. 234쪽. 4,000원 (보급가 2,000원).
- 김효성, 기독교 신앙입문. [제7판]. 34쪽. 600원.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판]. 108쪽. 1,200원.
- 김효성 역,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문답. [제7판]. 48쪽. 500원.
- 김효성,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 171쪽. 6,000원 (보급가 1,600원).
- 김효성, 에큐메니칼운동 비평. 158쪽. 6,000원 (보급가 1,700원).
- 김효성, 복음주의 비평. 193쪽. 6,000원 (보급가 1,200원).
- 김효성, 천주교회 비평. [제2판]. 80쪽. 900원.
- 김효성, 이단종파들. [제6판]. 70쪽. 700원.
- 김효성, 공산주의 비평. 28쪽. 무료.

★ 주문: 전화 02-334-8291, 이메일 oldfaith@hjdc.net

★ 계좌: 농협 302-0401-6652-61 김효성.

★ 파일내려받기: <http://www.cps2014.net/00download.htm>

**보급가는 인쇄비이며 문서현금입니다.